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redacted]	이름	장한별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Shippensburg
파견대학	Shippensburg University	파견기간	10개월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Shippensburg 대학교(이하, Ship)는 펜실베니아의 주도인 해리스버그에서 차로 약 1시간 반쯤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Ship은 작은 타운에 위치한 소규모 대학교입니다.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한 시골입니다.
2012-2학기 수업	전공으로는 가을에 Intro to criminal Justice를 들었습니다. Criminal Justice의 모든 수업은 교양이 아닌 Criminal Justice 전공이나 부전공, 복수전공만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Intro to Criminal Justice는 Criminal Justice System(CJS)에 대한 개론수업입니다. 책 내용으로 매 챕터마다 퀴즈를 풀고 2~3개의 페이퍼를 썼습니다. 교양으로 가을에는 Lifestyle Management, History Foundation Global Cultures를 들었습니다. Lifestyle Management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지 배우는 과목입니다. 2차례 간단한 체력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수업은 한국인 교수님이 진행하셨던 수업인데, 대체로 수업의 평이 좋아 수강인원이 빨리 찬다고 합니다. History Foundation Global Cultures는 이름이 길지만 몽고가 나오기 이전의 세계사입니다. 주로 피피티로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필기를 열심히 한다면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Intro to Human communication은 교수님에 따라 다른데, 제가 들었던 Dr.Lu의 수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저술한 책이라 교재도 비싸고 되팔 수도 없습니다. 교재내용을 어렵게 서술해서 쉽지 않았던 수업이었습니다.

2013-1학기 수업	봄학기에는 전공으로 Criminal law & Procedure, Policing a Democracy를 듣고, 봄에는 Strings Class와 Beginning of Spanish1을 들었습니다. Criminal law& procedure는 형법과 형사절차에 관한 것으로 수업 중에 실제 사건이나 기사, 가설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며 과제로 판례로 Case brief를 만들었습니다. Policing a Democracy는 경찰학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역사, 관련 법규, SWAT과 같은 스페셜 유닛들, 마피아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교재의 내용으로 퀴즈를 보고 피피티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봄에 들었던 Strings class는 현악기 수업인데, 원래 바이올린을 위해 개설되었지만, 첼로도 들을 수 있으며 수준에 따라 나누어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기타를 했는데, 기타는 총 5명으로 교수님 사무실에서 수업 외의 시간에 1대1 레슨을 하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 합니다. 저는 제 악기로 수업을 들었지만, 악기를 한국에 비해 싼 가격에 대여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말에 연주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며 학점도 잘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수업보다는 같이 음악을 즐기며 논다는 기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Beginning of Spanish1는 스페인어 초급 과정으로 미국에서는 스페인어가 제 2언어처럼 쓰입니다. 수업 때 노래도 듣고 게임을 하며 스페인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콜롬비아 출신이시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넓습니다. 꾸준히 단어를 외워야 하고 온라인으로 보는 퀴즈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언어학부에 새로 중국어과정이 개설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문화권이니 배우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국제 교류 담당으로는 메리와 다니엘이 있습니다. 도착할 때 각자 기숙사까지 픽업을 해주고 처음 도착하고 며칠 간 월마트로 차를 태워다 줬습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수업신청도 메리를 통해 하고 국제 학생들에 대한 서류는 메리와 다니엘 두 사람이 모두 담당합니다. 교환학생을 위해 중간에 쇼핑트립이 학기에 한두 번 있습니다. ISO라는 국제학생모임이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AAO라는 아시아계미국학생들을 위한 모임보다 낫습니다. Ship에 있는 AAO에 드는 것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겨울이 깁니다. 재작년에는 10월에 눈이 오고 작년 10월에는 허리케인 샌디가 와 추위가 빨리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이 오면 학교가 문을 닫고 카페테리아도 운영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펜실베니아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3월 중순이었던 스프링 브레이크가 끝나자 눈이 와 일부 수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눈 때문에 학교 문을 닫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서 봄까지 자주 비가 오는데 비가 온 후에는 날씨가 추워집니다.
안전	작은 시골마을이라 치안은 잘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아이들이 놀기 시작하는데, Stone Ridge와 마주한 Campus park common주변은 밤이 되면 시끄러운 편입니다.
숙소	*학교기숙사(ㅇ)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Stone Ridge는 캠퍼스 밖에 있는 아파트 형 기숙사입니다. 캠퍼스 밖이라 해도 미식축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캠퍼스 내 기숙사와 다르게 부엌이 있어 밀플랜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각 방마다 하나씩 샤워실이 붙어 있는 화장실이 있어 층마다 1층의 커먼 라운지에 있는 화장실을 제외하면 따로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다. 부엌과 욕실을 제외하면 불이 들어오지 않아 따로 전등을 써야 합니다. 부엌에 냉장고와 오븐이 있는 레인지가 있지만 역시 기본적인 식기와 전자레인지 같은 기구들이 없기 때문에 따로 구입하거나 룸메이트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두 명이 침실 하나를 같이 쓰는데 스톤릿지는 침실 두 개와 거실, 욕실, 부엌을 공유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침실을 홀로 쓰는 경우, 가격이 비싸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여기 아이들은 부엌이 있어도 어느 정도 밀플랜을 끊습니다. 경우에 따라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스톤릿지의 1층에는 커먼 라운지와 피트니스 룸이 있고 2층부터는 층마다 스터디 라운지와 세탁실이 있습니다. 커먼라운지에서 동전을 바꿀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세탁기와 탈수기는 머우리와 같은 다른 기숙사에 비해 1달러 더 싼 대신에 구형입니다. 1층과 2층은 세탁실을 공유해서 다른 층보다 더 더러워지기 쉽고 주말이나 브레이크 쯤에 빨래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스톤릿지는 다른 기숙사에 비해 조용한 편입니다. 캠퍼스 내의 다른 기숙사처럼 기숙사 내에서 금주, 금연입니다.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는 경우 세 번까지는 괜찮지만 세 번 이상이 되면 페널티가 있다고 합니다. 스톤릿지는 우편함을 방마다 배정받기 때문에 CUB에 있는 UPS에 가서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스톤릿지는 너글, 머우리에 비해 비싸고 프레지던트보다 쌉니다. 가격 대비 시설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건물로의 접근성이 멀지만, 밀플랜에서 자유롭고 브레이크때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초에 룸메이트와 룰을 만들고 지키는 게 정석이나, 갈등이 심한 경우 CA나 RD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을 바꾸는 경우에 불만을 품고 나가게 되는 것이라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침실을 공유하는 첫 룸메이트가 저와 제 친구들을 무시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을 바꿀 때, RD가 빈방을 알려주면 직접 그 방 아이들과 이야기를 한 후에, 살고 있는 방, 옮길 방 룸메이트 모두에게 서명을 받아야 옮길 수 있습니다. 서류가 통과되면 방을 옮기고 CA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o) 기타 ( )* 가을학기에는 머우리에 살았던 같이 교환학생을 온 친구와 함께 저녁을 같이 먹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학교식당으로는 레이즈너, 크라이너 두군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규모가 큰 레이즈너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식당은 둘 다 뷔페식이라 처음 갔을 때는 무리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밀플랜이 있는 사람이 밀플랜이 없는 사람에게 게스트밀을 해줄 수 있는데 이 경우 밀플랜이 있는 사람이 5번 정도 쓸 수 있고 중복 사용이 됩니다. CUB에 편의점과 카페테리아가, 도서관에 스타벅스, 크라이너에 작은 크기의 파파존스와 편의점, old main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플렉스와 현금, 카드, 밀로도 살 수 있습니다. 주중에 CUB의 편의점에서 랩을 주문한 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서브웨이처럼 SUB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파스타를 주문하는 대로 파스타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피자와 롤스시를 먹을 수도 있는데, 롤스시의 경우 비싼 가격 대비 양이 적은 게 흠입니다. 봄학기에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했는데, 인터넷으로 한인마트에 주문하기도 하고 월마트나 자이언트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 한식요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교통	통학은 걸어서 했고, 레드와 블루 라인이 거의 매일 다녀서 시간에 맞춰 월마트와 자이언트를, 주말에는 챔버스버그몰이라는 작은 몰에 가곤 했습니다. 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새벽과 저녁무렵 2차례 월마트에서 해리스버그로 고속버스가 다녀 브레이크때 주로 새벽에 월마트로 걸어가 그 버스를 타고 종점인 Transit center에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레이하운드와 암트랙을 탈 수 있는데 주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필라델피아, 워싱턴DC로 이동했습니다. 브레이크 말에는 캠퍼스로 돌아오는 학생을 위해 학생회에서 브레이크 전 주에 표를 사면 탈 수 있는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APB라는 곳에서 학기에 가끔 필드트립을 운영하는데 그 티켓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학기말과 시작 무렵에 국제학생 사무실에서 해리스버그 Transit center나 공항으로 데려다 주거나 거기서 픽업해줍니다. 저의 경우, 뉴욕에서 해리스버그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5시에 도착해 5시에 캠퍼스 행 막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방학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버스가 화, 목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야 합니다. 봄학기가 끝나면 역시 겨울방학이 시작했을 때처럼 공항이나 transit center에 데려다 줍니다.

4. 출국 전 준비사항

어학연수가 아닌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학점인정이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국제학생의 수강신청을 메리가 전부 담당하고 Ship 학생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신청한 과목을 듣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교재는 교수마다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used 북을 사거나,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언더그라운드라는 홈페이지에서 각 교수나 수업에 대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페이퍼는 APA와 MLA양식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MLA양식으로 작성합니다. 물론, 교수님이 알려주는 Instruction에 따라야 합니다. dropbox는 D2L에 있는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citation없이 문장을 그대로 베낀다면 법에 저촉됩니다. 실제로 전공 수업 중, Case brief를 하는데 80%가 Case원본과 일치해 교수님에게 한 번만 더 걸리면 학장실에 불려 갈 수 있다는 경고를 받는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제학생 수가 워낙 적어 미국이 아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백인이 주를 이루는 곳입니다. APB라는 학생회에서 농구경기, 뮤지컬, 대통령취임식, (롤러)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합니다. 이 행사나 APB에서 마련하는 버스트립으로 인근 도시인 뉴욕, 필라델피아 등을 싼 가격에 갈 수 잇습니다. 또 매달 조금 지난 영화 2~3편을 방영해주기도 합니다. 렉센터에서 1시간 가량 줌바 등의 강습을 무료로 해줍니다.

5. 사진보고서(6장 이상)

Ship book store		Stone Ridge Commons
Marching band in Corn festival		NYC, Newsies musical supported by APB
Elementary school & Shippen hall		CUB